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60-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3 부동산인식조사: 집값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

2023. 12. 13.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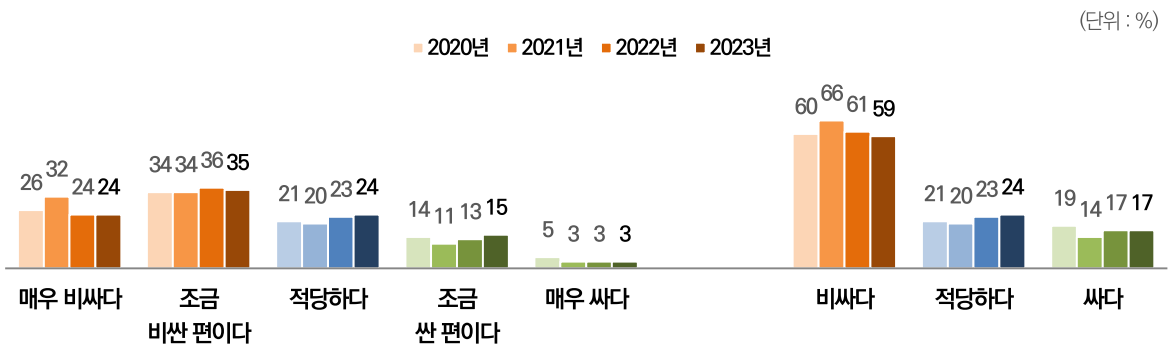
거주 지역의 현재 집값과 향후 집값 변동 전망

현 거주 지역의 집값 비싸다 59%, 싸다 17%

2023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9%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의 집값이 비싸다고 인식한다(매우 비싸다 24%, 조금 비싼 편이다 35%). 이는 지난해 대비 2%포인트 감소해 큰 변화는 아니나, 2021년(66%)와 대비하면 7%포인트 감소한 결과이다. 집값이 적당하다는 사람은 24%, 싸다는 사람은 17%로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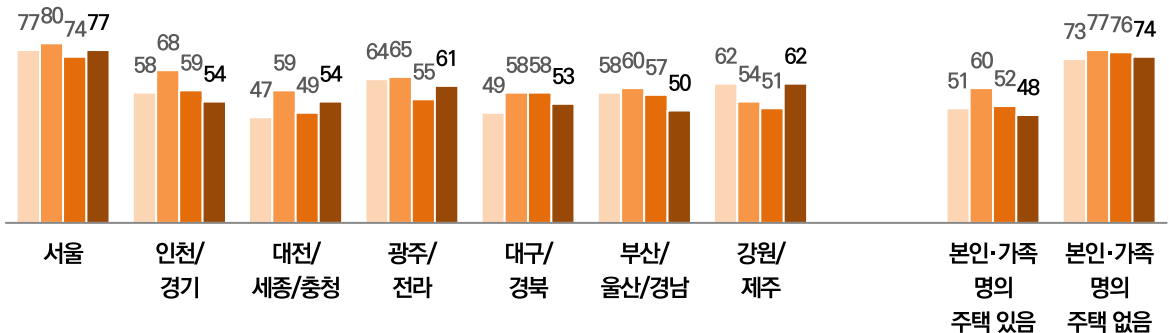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77%가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주중인 시·군·구 지역의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최소 절반 이상이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택이 없는 사람 중에서는 74%가 집값이 비싸다고 답한 반면, 주택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48%가 비싸다고 답해 인식차이가 크다.

현 거주 지역의 집값 비싸다 59%, 지난해와 비슷



서울 거주자는 77%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택이 없는 사람은 74%가 현재 집값 비싸다고 생각해

'거주 지역 집값 비싸다' 응답



질문: 지금 살고 계신 시·군·구 지역의 현재 집값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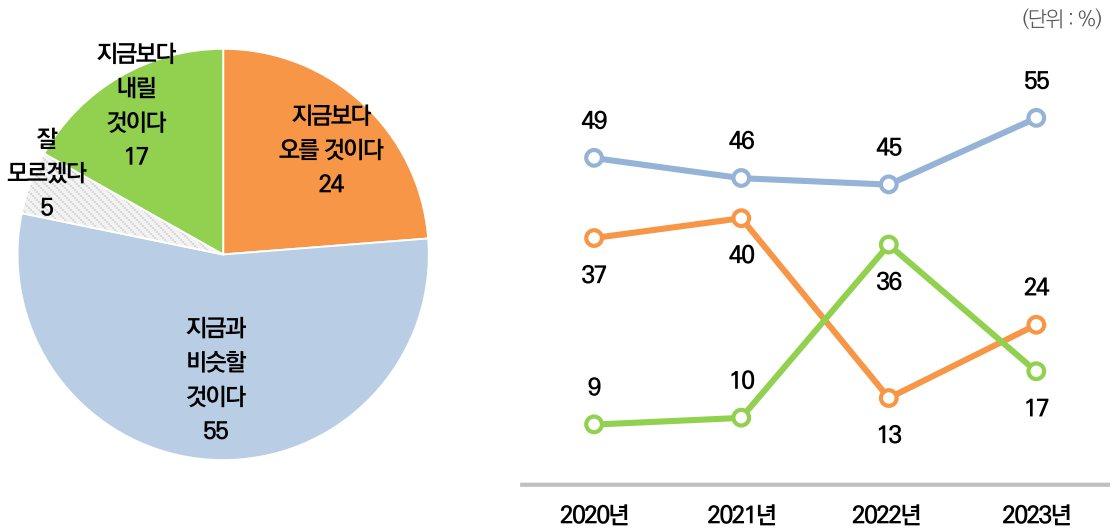
표본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9. 25 ~ 28 // 2021. 11. 12 ~ 15 // 2022. 10. 14 ~ 17 // 2023. 11. 10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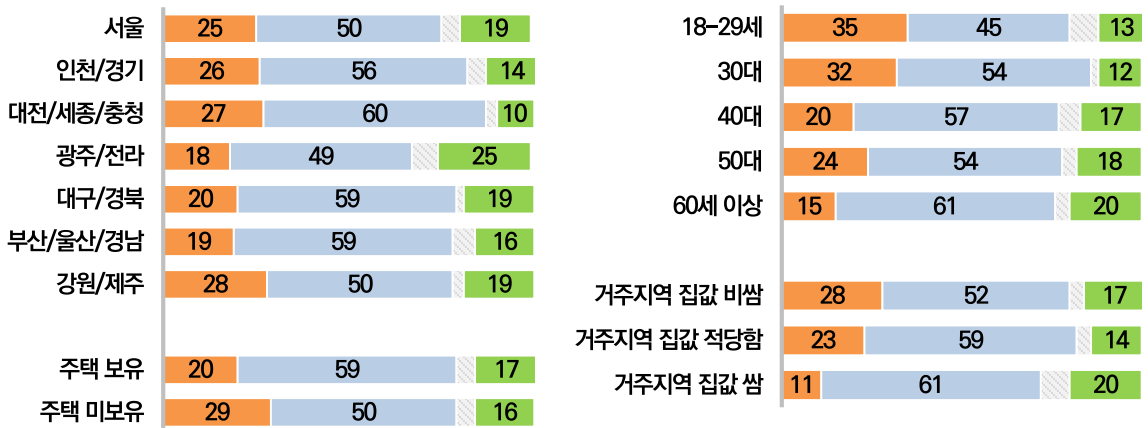
6개월 후 현 거주 지역의 집값, 지금과 비슷할 것 55%, 오를 것 24%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은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의 6개월 후 집값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집값이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17%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은 24%로 지난해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상반기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약보합세를 전망했던 1년 전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6개월 후 현 거주 지역의 집값, 지금과 비슷할 것 55%, 오를 것 24%



연령대나 거주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후 집값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 높아



질문: 지금 살고 계신 시·군·구 지역의 6개월 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표본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9. 25 ~ 28 // 2021. 11. 12 ~ 15 // 2022. 10. 14 ~ 17 // 2023. 11. 10 ~ 13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세대나 거주지역, 주택보유여부, 집값인식 등과 관계없이 6개월 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한 6개월 후 집값 전망, 세대, 지역, 이념성향, 주택보유여부 등과 관계없이 오르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 증가

(단위: %)

	지금보다 오를 것			지금과 비슷할 것			지금보다 내릴 것		
	'22년	'23년	GAP (23년 - 22년, %p)	'22년	'23년	GAP (23년 - 22년, %p)	'22년	'23년	GAP (23년 - 22년, %p)
전체	13	24	+11	45	55	+10	36	17	-19
성별									
남자	12	24	+12	43	56	+13	41	16	-25
여자	14	23	+9	47	54	+7	32	17	-15
연령									
18~29세	26	35	+9	39	45	+6	26	13	-13
30대	21	32	+11	40	54	+14	31	12	-19
40대	10	20	+10	48	57	+9	37	17	-20
50대	10	24	+14	46	54	+8	42	18	-24
60세 이상	6	15	+9	50	61	+11	41	20	-21
지역									
서울	11	25	+14	42	50	+8	40	19	-21
인천/경기	14	26	+12	46	56	+10	37	14	-23
대전/세종/충청	14	27	+13	48	60	+12	33	10	-23
광주/전라	18	18	-	45	49	+4	30	25	-5
대구/경북	8	20	+12	47	59	+12	38	19	-19
부산/울산/경남	10	19	+9	45	59	+14	38	16	-22
강원/제주	19	28	+9	50	50	-	28	19	-9
이념성향									
진보층	12	23	+11	43	51	+8	42	23	-19
중도층	14	23	+9	47	54	+7	33	16	-17
보수층	12	23	+11	47	61	+14	37	12	-25
모름/없음	25	34	+9	39	46	+7	18	12	-6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11	20	+9	47	59	+12	38	17	-21
주택 미보유	17	29	+12	42	50	+8	34	16	-18
거주지역 집값 인식									
비싸다	17	28	+11	40	52	+12	40	17	-23
적당하다	9	23	+14	54	59	+5	30	14	-16
싸다	6	11	+5	52	61	+9	34	20	-14

질문: 지금 살고 계신 시·군·구 지역의 6개월 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고: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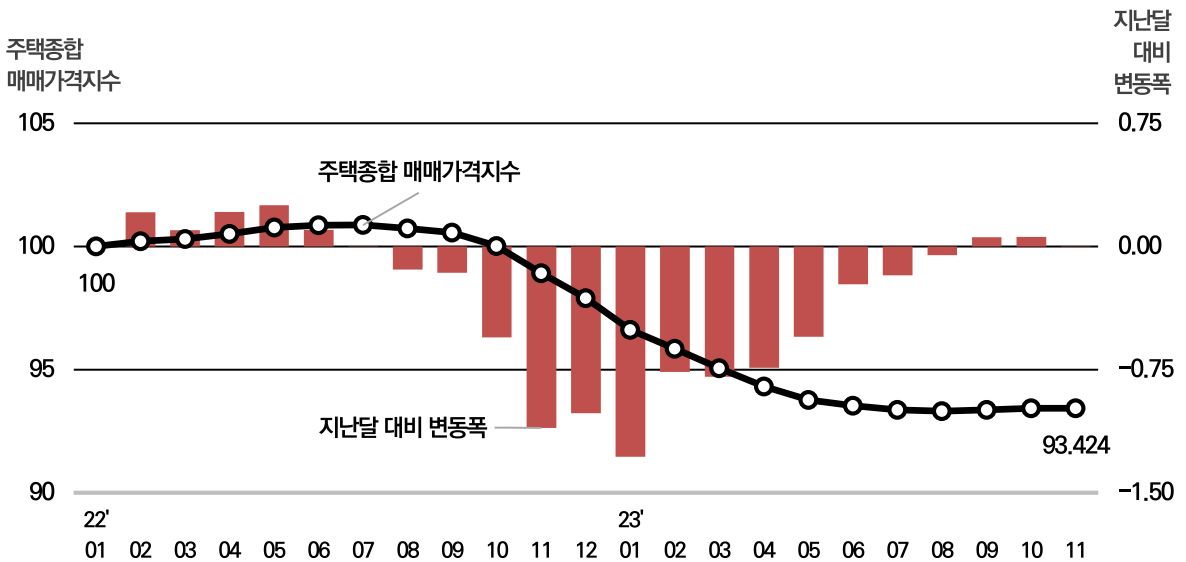
표본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부동산 가격,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하락 후 현재는 보합세

KB부동산 데이터허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3.424이다. 기준시점인 2022년 1월(100)과 비교하면 6.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국 집값이 2년 전보다는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월 ~ 6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택가격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해 11월 ~ 올해 1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 달 대비 1포인트씩 하락해,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올해 8월까지 하락이 이어지던 주택가격은 9월부터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하락 후 현재는 보합세



비고: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기준시점(2022년 1월 10일) 대비 조사 시점의 가격 비율 (주택별·지역별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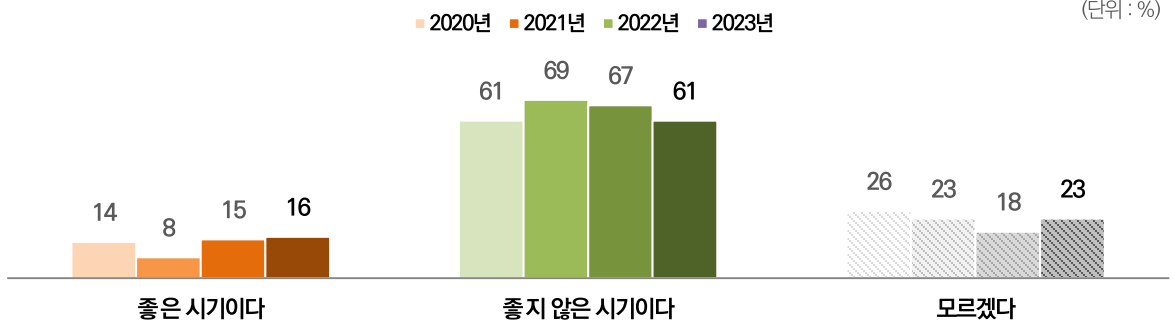
출처: KB부동산 데이터허브(<https://data.kbland.kr>),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2022년 1월 ~ 2023년 11월)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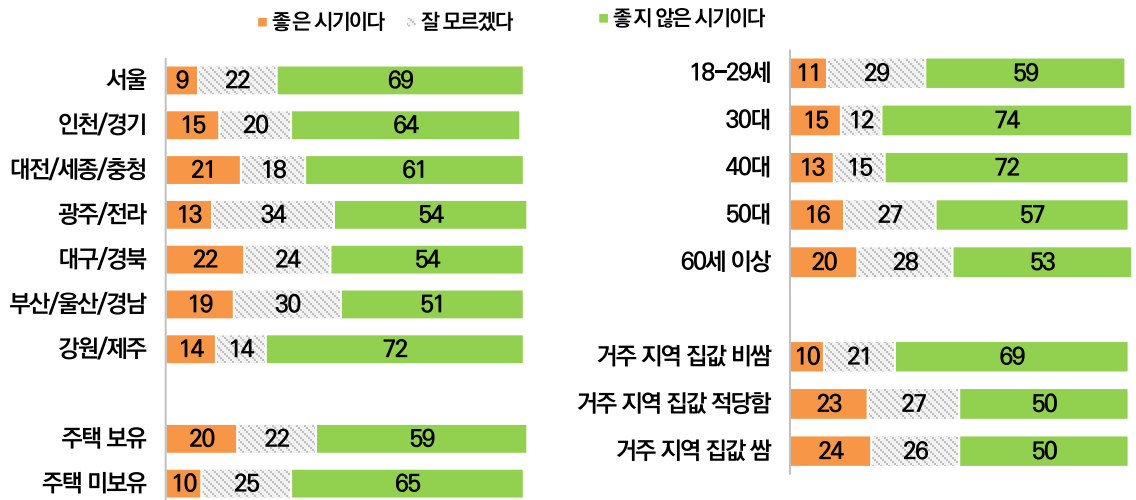
현재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이다 61%, 좋은 시기이다 16%

현재는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 라고 보는 사람은 전체의 61%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6명은 현재 집을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현재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 라고 보는 사람은 지난해와 비슷한 16%이다.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당분간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령대와 거주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구매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응답이 다수이며, 거주지역 집값이 적당하거나 싸다고 보는 사람들도 절반(50%)은 지금 집을 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다.

현재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이다 61%, 좋은 시기이다 16%



연령대나 거주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의견 우세



질문 : 현재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28 // 2021. 11.12 ~ 15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현재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인식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와 비교한 주택 구입 인식, '현재는 집을 사기 좋지 않은 시기이다' 여전히 우세하나 충청·호남·대경권에서 하락폭 상대적으로 커

(단위 : %)

	현재는 집을 사기 좋은 시기이다			현재는 집을 사기 좋지 않은 시기이다			잘 모르겠다		
	'22년	'23년	GAP (23년 - 22년, %p)	'22년	'23년	GAP (23년 - 22년, %p)	'22년	'23년	GAP (23년 - 22년, %p)
전체	15	16	+1	67	61	-6	18	23	+5
성별									
남자	15	15	-	72	65	-7	13	20	+7
여자	15	16	+1	63	57	-6	22	26	+4
연령									
18~29세	11	11	-	65	59	-6	23	29	+6
30대	16	15	-1	73	74	+1	11	12	+1
40대	14	13	-1	72	72	-	15	15	-
50대	16	16	-	70	57	-13	14	27	+13
60세 이상	18	20	+2	61	53	-8	22	28	+6
지역									
서울	12	9	-3	73	69	-4	16	22	+6
인천/경기	16	15	-1	68	64	-4	16	20	+4
대전/세종/충청	13	21	+8	73	61	-12	14	18	+4
광주/전라	17	13	-4	66	54	-12	18	34	+16
대구/경북	16	22	+6	71	54	-17	13	24	+11
부산/울산/경남	19	19	-	56	51	-5	26	30	+4
강원/제주	14	14	-	58	72	+14	28	14	-14
이념성향									
진보층	13	12	-1	72	66	-6	15	21	+6
중도층	15	14	-1	65	58	-7	20	28	+8
보수층	17	23	+6	66	61	-5	17	17	-
모름/없음	17	7	-10	63	59	-4	21	34	+13
주택 보유 여부									
주택 보유	18	20	+2	65	59	-6	18	22	+4
주택 미보유	11	10	-1	72	65	-7	17	25	+8
거주지역 집값 인식									
비싸다	11	10	-1	75	69	-6	14	21	+7
적당하다	20	23	+3	57	50	-7	23	27	+4
싸다	24	24	-	54	50	-4	22	26	+4

질문 : 현재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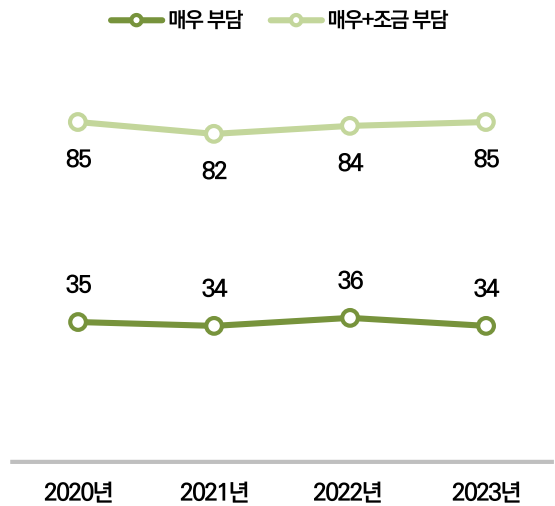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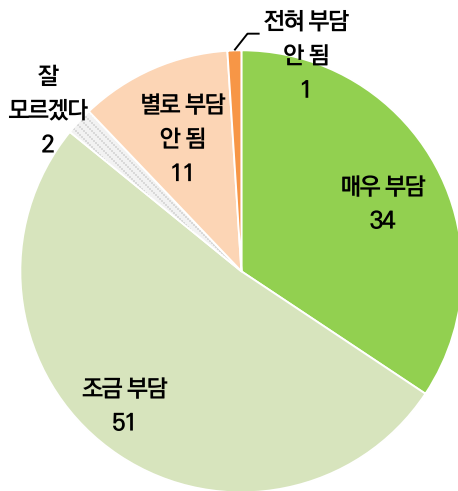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인식

주택 임차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된다 85%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가 주택 임차료 및 주택 관련 대출금을 매월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 중 85%가 매월 비용을 상환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매우 부담 34%, 조금 부담 51%). 2020년 이후 주택 임차료 및 주택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80% 초중반대, 특히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3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 임차료나 대출금 등을 매달 지출하는 응답자의 85%가 금액이 부담된다고 답해

(단위 : %)



질문: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표본 수: 주택비용 매달 상환하고 있는 응답자(2020년 541명, 2021년 500명, 2022년 515명, 2023년 539명)

조사기간: 2020. 9. 25 ~ 28 // 2021. 11. 12 ~ 15 // 2022. 10. 14 ~ 17 // 2023. 11. 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정부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입장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동산정책 추진 50%,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기고 개입 자제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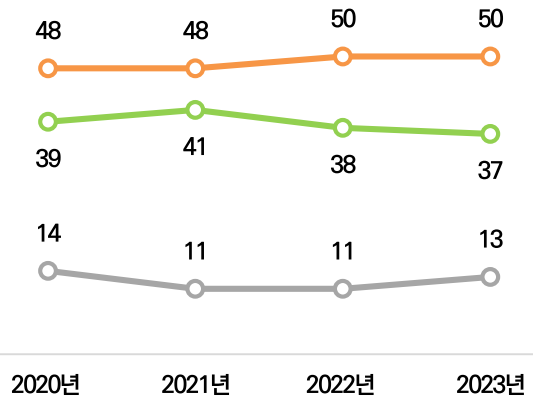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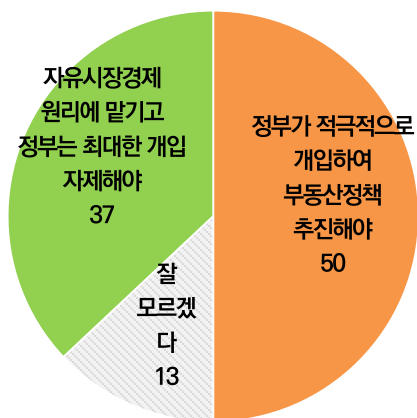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람이 50%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기고 정부는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람(37%)보다 많다. 지난해 조사와 큰 차이가 없고, 202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세하며, 특히 18-29세에서는 그 차이가 두 배 이상에 달한다(정부의 적극적 개입 55%, 최대한 개입 자제 22%). 또한 전 지역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대구/경북(정부의 적극적 개입 55%, 최대한 개입 자제 35%), 부산/울산/경남(정부의 적극적 개입 53%, 최대한 개입 자제 33%) 지역에서 의견 차이가 큰 편이다.

보수층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47%)과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47%) 간 차이가 없으나, 진보층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55%)이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35%)을 20%포인트 앞선다.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정부의 적극적 개입 54%, 최대한 개입 자제 31%), 거주지역의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정부의 적극적 개입 51%, 최대한 개입 자제 36%)도 절반 이상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줄기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동산정책 추진 50%,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기고 개입 자제 37%

(단위 : %)



질문 : 귀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십니까?

표본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28 // 2021. 11. 12 ~ 15 // 2022. 10. 14 ~ 17 // 2023. 11. 10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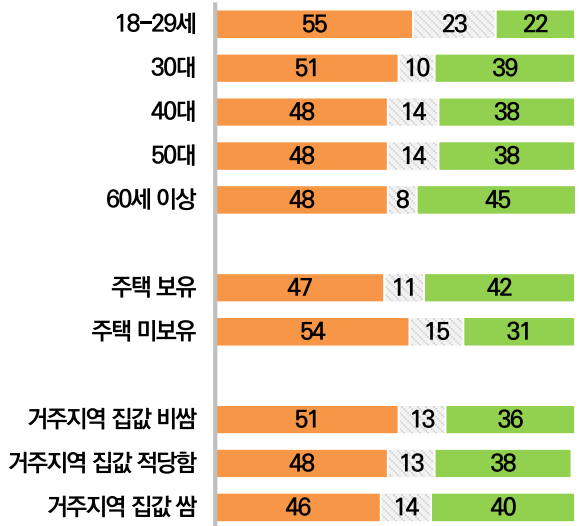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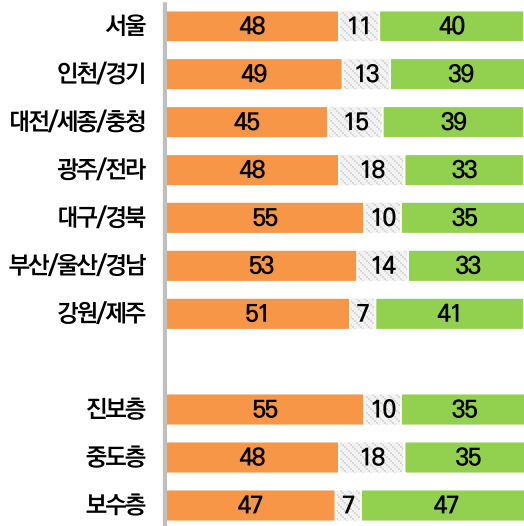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진보층, 18-29세는 55%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필요하다고 답해

(단위 : %)

■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동산정책 추진해야

■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질문 : 귀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십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10월 기준 약 89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883명 , 조사참여 1,33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7%, 참여대비 74.8%)
조사일시	• 2023년 11월 10일 ~ 11월 13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